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1. 12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사무엘상 · 데살로니가전서 · 데살로니가후서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이 땅에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Contents

- 9 매일성경묵상 데살로니가전서 1장 ~ 데살로니가전서 3장
- 14 1과 깨어짐
- 22 매일성경묵상 데살로니가전서 4장 ~ 사무엘상 8장
- 30 2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환상
- 38 매일성경묵상 사무엘상 9장 ~ 사무엘상 14장
- 46 3과 하나님의 선언들에 대한 기대
- 54 매일성경묵상 사무엘상 15장 ~ 사무엘상 20장
- 62 4과 베들레헴 작은 마을
- 70 매일성경묵상 사무엘상 21장 ~ 사무엘상 26장

12

December 2011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4	5 데살로니가전서 4장	6 데살로니가전서 5장	7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	12 사무엘상 9장	13 사무엘상 10장	14 사무엘상 11장
18	19 사무엘상 15장	20 사무엘상 16장	21 사무엘상 17장
25	26 사무엘상 21장	27 사무엘상 22장	28 사무엘상 23장

January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요일

1 데살로니가전서 1장

8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 사무엘상 12장

22 사무엘상 18장

29 사무엘상 24장

금요일

2 데살로니가전서 2장

9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 사무엘상 13장

23 사무엘상 19장

30 사무엘상 25장

토요일

3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 사무엘상 8장

17 사무엘상 14장

24 사무엘상 20장

31 사무엘상 26장

교외 주요일정

12월 22일

성탄축하 찬양의 밤

12월 23일

성탄절 감사 찬양제

12월 25일성탄절 감사 예배
제6차 학습세례식

나의 주요일정

- 1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2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3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4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5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6 1년 1인 1명(1 · 1 · 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7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8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임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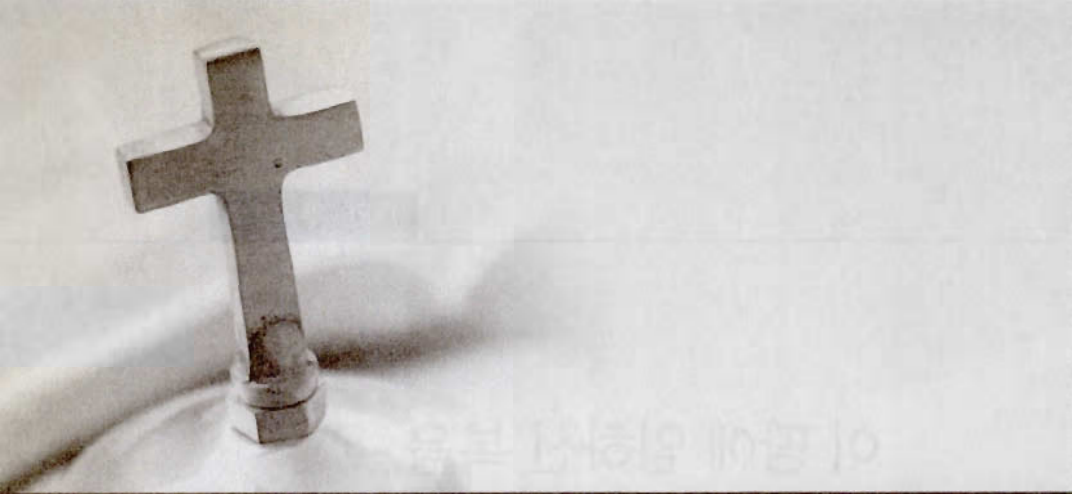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셨으며,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이 선언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세상 일들로 근심하지 말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또한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벌하실 것입니다.
“그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눅 3:19).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2011년 12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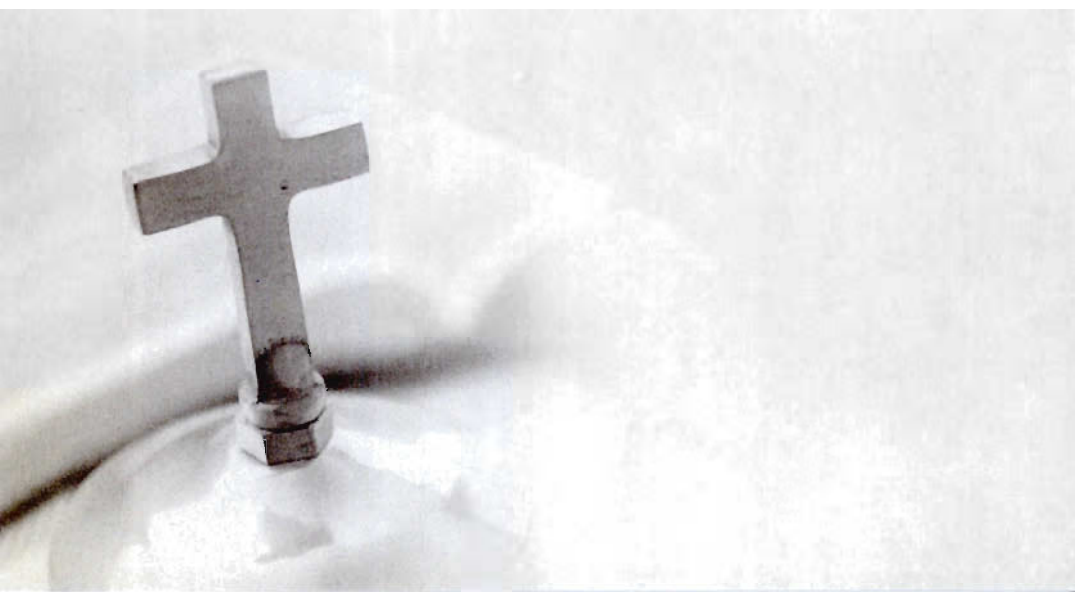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믿음의 소문

목요일

1

데살로니가서는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쓴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룩한 믿음의 진보에 대한 칭찬과 역경 중에도 굳게 서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것에 대한 권면의 내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밝힌 위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인사와 함께 그들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 감사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인함이었습니 다. 또한 바울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으며(3~6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삶 속에서 좁은 길, 곧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며 더 나아가서 세상이 놀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찬송가 381장

묵/상/노/트

· **인내(3절)** : '뒤에 남아 있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하였는데, '견고히 선, 확고 부동'이라는 1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대, 기다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내'는 자연스럽게 '소망'이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살전 1:3)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②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2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찬송가 518장

목/상/노/트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박해 받았던 일들을 회상합니다. 그가 그같은 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같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 실제적인 사역의 목적이었다고 말합니다(12절). 마지막에 바울은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자신들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밝히며 성도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나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라 말하며 스스로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탁 받은 자들입니다(4절).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복음을 전함 받은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될 때 그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며 기쁨이 될 것입니다.

• 간사함(3절) : 간교함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길을 잃음, 배회함, 방황함을 의미한다. 잘못된 견해나 교훈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살전 2:4)

기도제목

① 복음을 위탁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바울의 감사와 기도

3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참다 못한 바울과 그 일행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는 믿음을 위로하고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하는 보고를 들은 바울과 그 일행은 그들이 처한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있으며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일행들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은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굳세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실로 고난과 궁핍함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 안에 세워진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감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여전히 내가 처한 환경의 만족함과 내 욕심의 충족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살전 3:13)

데살로니가전서 3장
찬송가 317장

묵/상/노/트

• 심히(10절) : '간구하다' 앞에 '심히'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심히'라는 표현은 '대단히, 엄청나게'라는 의미로 '과다하게, 너무 많아 남아돌게, 몹시'를 의미한다.

기도제목

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매 순간 감사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노트

믿음의
삶

지금,
십자가 복음 안에
계십니까?

2011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월을 몹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더욱 바쁘고 설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주함으로 정작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것을 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요 3:16). “지금 십자가 복음 안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 매 순간 스스로에게 해야 하며, 서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마 7:13)로 나아갈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갈 6:1).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깨어짐

누가복음 5:1~11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환상
이사야 32:1~4하나님의
선언들에 대한 기대
스바냐 3:14~20베들레헴
작은 마을
미가 5:2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4 주일

5 월요일 ☐ 대실로니가전서 4장6 화요일 ☐ 대실로니가전서 5장7 수요일 ☐ 대실로니가후서 1장8 목요일 ☐ 대실로니가후서 2장9 금요일 ☐ 대실로니가후서 3장10 토요일 ☐ 사무엘상 8장

깨어짐

1

| 초점 |

나의 모든 것이 복음으로 깨어져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본문 | 누가복음 5:1~11

⁽¹⁾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²⁾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

⁽³⁾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는 서로 밀면서 호숫가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 한 배에 오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 누가복음 5장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 그에게 노를 조금 저어 가서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시몬의 배가 강대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설교를 하셨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무리로부터 떨어졌다

예수님은 무리로부터 떨어지셨습니다.

눅 5:3 /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_____
_____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려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의 배를 사용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눅 5:4).

※ 누가복음 5:4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과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히 5:9 _____

그물이 찢어졌다

어부들의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눅 5:6 /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_____

시몬 베드로와 동료들은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두 번째 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눅 5:7). 어부들은 모두 밤새도록 낚시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피곤에 지쳐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힘들 때, 심지어 너무나 지쳤을 때야말로 최고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실패에 넘어지는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실패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불가능한 목표가 놓여 있다고 생각된다면, 바로 그 때 믿음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차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힘들 때에도 일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이 생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므로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롬 8:26 _____

고후 13:9 _____

베드로가 깨졌다

시몬 베드로는 깨어짐으로 회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눅 5:8 /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_____
_____ 하니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들을 하라고 요구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 없이 행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과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 회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나누어 보십시오.

계 2:5 _____

이 땅의 것을 포기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이의 어부로서의 협력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눅 5:9~11 _____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고기 잡는 생업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의 추구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는 진실로 회개하였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버리거나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깨어짐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알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복음으로 깨어져야 합니다. 아멘.

벧후 3:9 _____

계 3:3,19 _____

| 간절한 기도 |

- 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깨뜨려 주소서.
- ②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 ③ 복음으로 깨어져,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꽃은남나하

5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꽃은남나하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4장

찬송가 218장

목/상/노/트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호와 회고를 모두 끝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나를 대하고, 색욕을 따르지 말고, 자기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형제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스스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같은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죽은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주를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호о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은 이방인들과 같이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며 나만을 생각하여 형제를 해하는 삶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삶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같은 삶이 진실로 위로를 얻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7)

• 형제를 해하다(6절) : '해하다'라는 용어는 '몰레오네 크테오'라는 단어로서 원어적으로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유래하여 '남을 이용하다, 남으로부터 이득 취하다, 남을 속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기도제목

①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십자가를 따르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것이며,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확언하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성도는 빛의 아들이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직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피차 권면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는 바울은 주 안에서 사는 이같은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해야 하며, 또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격려하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기를 권면하면서 바울은 인사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결코 세상에 취해서 자는 자들과 같지 않고 오직 깨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권면하고 세wig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 형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주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살전 5:11)

데살로니가전서 5장

찬송가 451장

목/창/노/트

• 권계하라(14절) : 비로 앞에 사용되는 '권면하다'라는 표현과는 의미가 다른 표현이다. '권면하다'가 '따라 칼레오'라는 용어로 '자기 겉으로 부르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위로와 격려의 권면이라면 '권계하다'는 '누데테오'라는 용어로 '경고하고, 충고하다'는 의미가 강하다.

기도제목

①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들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건강함을 주소서.

기도노트

부르심에 합당함을 위한 기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
찬송가 325장

목/상/노/트

바울로부터 첫 번째 편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거짓 가르침에 혼란을 겪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하여 바울은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는 꺾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격려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의 자람과 서로 사랑함을 감사하고, 그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어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임을 선포합니다(6~9절).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분명히 영원한 멸망의 형벌과 성도들에게 놀라운 영광이 있을 것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그의 기도의 제목은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의 그 모든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행함을 독려하고 칭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믿음의 역사(11절): 믿음의 일이라는 의미이다. 역사로 번역된 '에르곤'이라는 용어는 일이나 어떤 행위를 지칭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살후 1:11)

기도제목

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에 배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마지막 때에는

8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날이 즉각적으로 임하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나타냄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고 멸망시킬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악한 자를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굳건하게 서서 교회의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중 어떤 자들은 바울이 말한 갑작스러운 재림을 즉각적인 재림이라 오해하였는데, 바울이 말했던 갑작스러운 재림은 결코 즉각적인 재림이 아니었습니다. 성도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결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때와 시기를 물었을 때 그것은 너희에게 속한 일이 아니므로 신경쓰지 말 것이며,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성도로 하여금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두게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 2:17)

데살로니가후서 2장
찬송가 84장

목/상/노/트

• 미혹되다(3절) : 속임을 당하거나, 기만당하는 것을 말한다.

기도제목

① 마지막 때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게으르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찬송가 330장

묵/상/노/트

바울은 자신들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와 같이 퍼져 나가는 것과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는 마지막 부탁을 하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강력한 권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을 핑계하며 게으르지 말 것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사도와 일행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위하여 담대하게 자신들을 본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수고하여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를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면의 말을 마치며 그는 혹 형제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고 말하며 인사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향할 편지를 마칩니다.

진실로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이 결코 성도를 게으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에는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따르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살후 3:11)

• 게으르게 행하다(11절) : 7절에 나오는 '무질서하게 행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어근의 용어이다. 이는 '이탁토스라'는 용어로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의무에 태만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기도제목

① 오늘도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한 날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너를 버림이 아니요

10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임을 거절하고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합니다. 이같은 모습에 사무엘은 그간 열정을 쏟아온 일이 물거품이 되는 듯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사무엘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늙은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7~9절). 자기 백성의 온전치 못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대신에 백성들로부터 모든 권력을 위임받아 그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부리는 '열방과 같은 왕정' 아래서 겪을 비참한 생활을 자상하게 가르치며 그와 같은 왕정에 대한 기대를 꺾으십니다(10~18절). 그러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합니다(19~20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참으로 백성답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전과 생존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자기들을 이방으로부터 지켜 줄 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에게 당하는 이유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왕은 아니더라도 나를 지켜줄 어떤 것들을 찾고 있다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우리를 지키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항복할 때 우리는 참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삼상 8:7)

사무엘상 8장

찬송가 313장

목/창/노/트

• 천부장 · 오십부장(12절) :
천부장은 일천 명을, 오십
부장은 오십 명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모세 당시에는
재판을 담당하기도 했대신
(115~116).

기도제목

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항복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삶이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죽을 때까지 선교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며, 너무도 은혜로운 권면의 말씀이다. 하지만 스테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증거하다 순교한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순교에 이를 수 있음을 보았고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려한 것이며 참으로 그들의 심령을 뒤흔드는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

어떤 마을에 이르러 복음을 전파한 지 20분도 안 되어 그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우리 조는 일찍 승합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도착해 보니 이미 40여 명 이상이 차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이 손으로 차를 치고 전도지와 지도책을 빼앗는 북새통 속에서 우리는 차를 타고 마을 밖으로 빠져나왔다. 4km 이상을 사냥총을 차에 싣고 따라오는 그들에게 쫓기느라 다른 2개 조에게는 알리지도 못하고 마을을 떠나오게 되었다. 이후 승합차 기사와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몇 시간 뒤에야 팀 전원이 합류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두는 감사했다.

‘617세’, 이것은 우리 팀원 모두의 나이를 합한 숫자이다. 오랫동안 선교를 소망하였으나 수술이나 지병 등으로 육체의 나약함을 가진 우리 팀은 유난히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였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팀 훈련을 통하여 고백하였다. 영적으로 척박한 선교지에서 주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불쌍한 영혼들을 발견케 하시고, 그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감사함으로 찬양드릴 수 있었다. 우리 팀원 모두는 함께 부르짖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다. 죽을 때까지 선교사다.” 함께 해 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교를 감당하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총에 무한 감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 드린다.

신현철(안수집사, 10교구)

깨어짐

누가복음 5:1~11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환상
이사야 32:1~4하나님의
선언들에 대한 기대
스바냐 3:14~20베들레헴
작은 마을
미가 5:2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1 주일

12 월요일

☐ 사무엘상 9장

13 화요일

☐ 사무엘상 10장

14 수요일

☐ 사무엘상 11장

15 목요일

☐ 사무엘상 12장

16 금요일

☐ 사무엘상 13장

17 토요일

☐ 사무엘상 14장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환상



| 초점 |

나의 모든 것을 복음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 본문 | 이사야 32:1~4

⁽¹⁾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²⁾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³⁾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구세주와 그분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사 7:14 _____

사 9:6~7 _____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술할 때에 주로 사용했던 말들을 살펴봅시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안전한 피난처와 같습니다.

사 32:2 / 또 그 사람은 _____,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우리의 삶에는 광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시 90:10).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흔들리는 환경의 광풍, 우리를 유인하는 유혹의 광풍과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의 광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잠 1:27 _____

※ 모세의 삶에 일었던 광풍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전 2:17 _____

우리는 일상이라는 강풍 가운데에서 고요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삶의 모든 광풍을 잠잠케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므로 우리는 결코 삶의 풍파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마가복음 4:39, 요한복음 6:37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폭풍우를 피하는 은신처

예수님은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은신처와 같습니다.

사 32:2 /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_____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지금 세계는 죄와 그로 인한 결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종류의 위험하고 끔찍한 폭풍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침대에서 한 발짝 걸어 나가기도 전에 맹폭격을 당하는 듯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 없는 자들의 집이며 전쟁 중에 피할 요새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머물 곳을 찾는 사람들의 은신처이십니다.

눅 8:25 _____

요 16:33 _____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폭풍이 우릴 위협하든지(가정 문제, 질병,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 혼란, 감정적인 문제들, 영적 전쟁 등등)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고도 거룩하신 장소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 119:114 _____

마른 땅의 강물

예수님은 마른 땅의 강물과 같으십니다.

사 32:2 /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_____
_____ 곧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지 쉬지 않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십니다!

※ 요한복음 4:13~14, 7:37~38, 전도서 2:16~19, 요한계시록 22:17 말씀이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그늘

예수님은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그늘과 같으십니다.

사 32:2 /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넷물 같을 것이며 _____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일상적 투쟁으로부터의 심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돌봄이 없이는, 이 곳에서의 삶은 피곤할 뿐입니다.

마 11:28 _____

예수님이 주시는 쉼의 특권은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은혜입니다 (눅 10:21~22).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과 재능과 체력을 주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무시합니까? 왜 자신과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제발, 예수님을 믿어 오늘 구원을 받으십시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때, 나의 모든 것을 복음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사 40:31 _____

행 16:31 _____

| 간절한 기도 |

- ① 나의 모든 것을 복음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 ②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풍성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소서.



이슬람교의 이해

15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7세기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태어났다. 그는 3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계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계시를 바탕으로 이슬람교를 창시하였다. 이슬람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슬람교의 교의는 '신앙의 5기둥'으로 요약된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것(임란), 둘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나즈), 셋째,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자카트), 넷째, 메카로 순례하는 것(하즈), 다섯째, 금욕하는 것(사움)이다.

15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7세기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태어났다. 그는 3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계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계시를 바탕으로 이슬람교를 창시하였다. 이슬람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슬람교의 교의는 '신앙의 5기둥'으로 요약된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것(임란), 둘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나즈), 셋째,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자카트), 넷째, 메카로 순례하는 것(하즈), 다섯째, 금욕하는 것(사움)이다.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상 9장
찬송가 304장

독/상/노/트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십니다(1~2절). 우연하게 보이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된 필연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 우연 같이 느껴지는 것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엮여 가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고운 심성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힘든 일이라도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3~14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앞으로 사울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알리어 미리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지만 사무엘은 나귀를 찾아 온 사울에게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위하여 암나귀를 마음에 두지 말라고 충고합니다(15~27절).

세상의 모든 일이 마치 하나님 없이도 운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 심지어 동물이나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뜻에 맞게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음을 사무엘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운행하심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 세상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며 다른 뜻을 찾는 것이 아닌,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로 생명을 얻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 염려하지 말라(20절) : 히브리 원어상의 의미로는 '너의 마음에 두지 말라'이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삼상 9:15)

기도제목

① 마치 우연처럼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고 발견케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새 마음

13

사무엘은 기름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는 사울에게 권위와 힘을 주고 그의 사역을 합법화하는 의식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일을 위해 부름 받았음을 뜻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자신이 왕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1~10절). 사무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각성의 장소인 미스바에 모아 '열방 같은' 왕을 요구한 그들의 잘못을 상기시킨 후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생겼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24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9절).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미 기존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이 세상에 오면서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은 옛 마음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본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새 마음은 거듭난 자가 갖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모습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삼상 10:9)

사무엘상 10장

찬송가 436장

목/창/노/트

•기름을 부으새(1절) : 구약에서 기름부음은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시행되었다.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은 왕이 직무를 담당하기 전에 성별되어야 한다는 것과 권세를 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통치를 위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기도제목

“거듭난 새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믿음에 거한다면

사무엘상 11장

찬송가 519장

목/장/노/트

•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15절) : 온 회중이 제물을 먹으며 즐거워함은 이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평화로운 교통이 실현된 것을 상징하고 있다.

암몬 족속들이 싸움을 걸어오자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은 싸움을 해 보지도 않고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암몬은 더욱 치욕적인 요구를 합니다(1~3절). 평범한 농부로 돌아간 왕 같지 않은 왕 사울은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여호와와 신의 감동을 받아 군사를 모집합니다(7~8절). 사울은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합니다(9~10절).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맨 처음 성소로 삼았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11~15절).

암몬 사람이 길르앗 아베스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며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너희를 섬길 테니 우리와 연합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아베스 사람들은 암몬이라는 힘 앞에서 하나님을 아무런 힘도 못쓰는 이름만의 신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에서의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면 아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신자다움이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신자의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한다면 세상 것이나 죽고 사는 것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거한다면 자기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것을 잃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것에서 이미 불행은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아베스에 맞서 진 치매 아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연합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삼상 11:1)

기도제목

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되게 하소서. ② 2011년, 종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36)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은 열조를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시킨 후 하나님을 왕으로 요청하지 않고 인간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왕이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 왕정이 이방처럼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왕정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시내산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14~15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자 그들은 곧 그것을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악에서 떠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20~22절). 그러나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왕과 백성이 모두 언약에 충실할 때만 이스라엘의 왕정은 유지될 것입니다(25절).

이스라엘은 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인간 왕을 구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얼마든지 미움을 받아 마땅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구나'라고 단순히 상상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죄는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 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죄인은 용납하 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총의 삶을 가슴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삼상 12:22)

사무엘상 12장

찬송가 393장

묵/상/노/트

• 밀 베는 때(17절) : 봄비가 끝나는 5,6월을 가리킨다.

기도제목

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노트

16

칼이나 창이 없고

사무엘상 13장
찬송가 104장

독/상/노/트

블레셋의 침략에 사울은 다시 백성들을 전쟁에 소집합니다. 하지만 암몬과의 전쟁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언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반응도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두려워 숨고 있습니다. 사울이나 백성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군사 전략만 믿고 있거나 객관적인 전력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1~7절). 때문에 군사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초조해진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월권행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8~10절). 이에 사무엘은 변명을 일축하고 그의 통치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합니다(11~14절).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제사를 드렸지만 떠나가는 백성들의 수는 계속 늘어 결국 삼천 명이던 군사는 육백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15~23절).

사울과 함께 한 백성의 수는 육백 명 가량뿐이었습니다. 이는 블레셋 군사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숫자였습니다. 게다가 사울과 함께 한 백성들에게는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결과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의 무기로 칼과 창을 품고 있습니까? 칼과 창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 벤아덴(5절) : 히브리어
‘벤’은 ‘집’, ‘아덴’은 ‘약’
으로 ‘약의 집’을 뜻한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삼상 13:22)

기도제목

① 우리의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천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잘못된 맹세

17

사울의 지도력 부재로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블레셋을 습격하여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1~23절). 그러나 사울은 전쟁 중인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하여 백성들이 죄를 지을 빌미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솔한 맹세로 그의 아들 요나단마저 위태롭게 합니다. 갈수록 기울어 가는 사울 왕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24~42절). 지도력의 부재로 사울은 승리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자식과 백성 모두의 마음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사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묘사와 함께 서술된 승리 기사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43~52절).

사울은 자신이 선포한 금식에 대해 순종치 아니했다는 이유로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으로 여기고, 이 요나단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규례를 범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울이 세운 법을 이행치 않았을 뿐입니다. 사울의 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 멋대로 부과한 규정이며 맹세일 뿐이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에게는 짐이며 고통일 뿐인 법이었으며, 사울 자신의 신앙을 내세우고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야 할 삶의 규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도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그 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삼상 14:28)

사무엘상 14장

찬송가 10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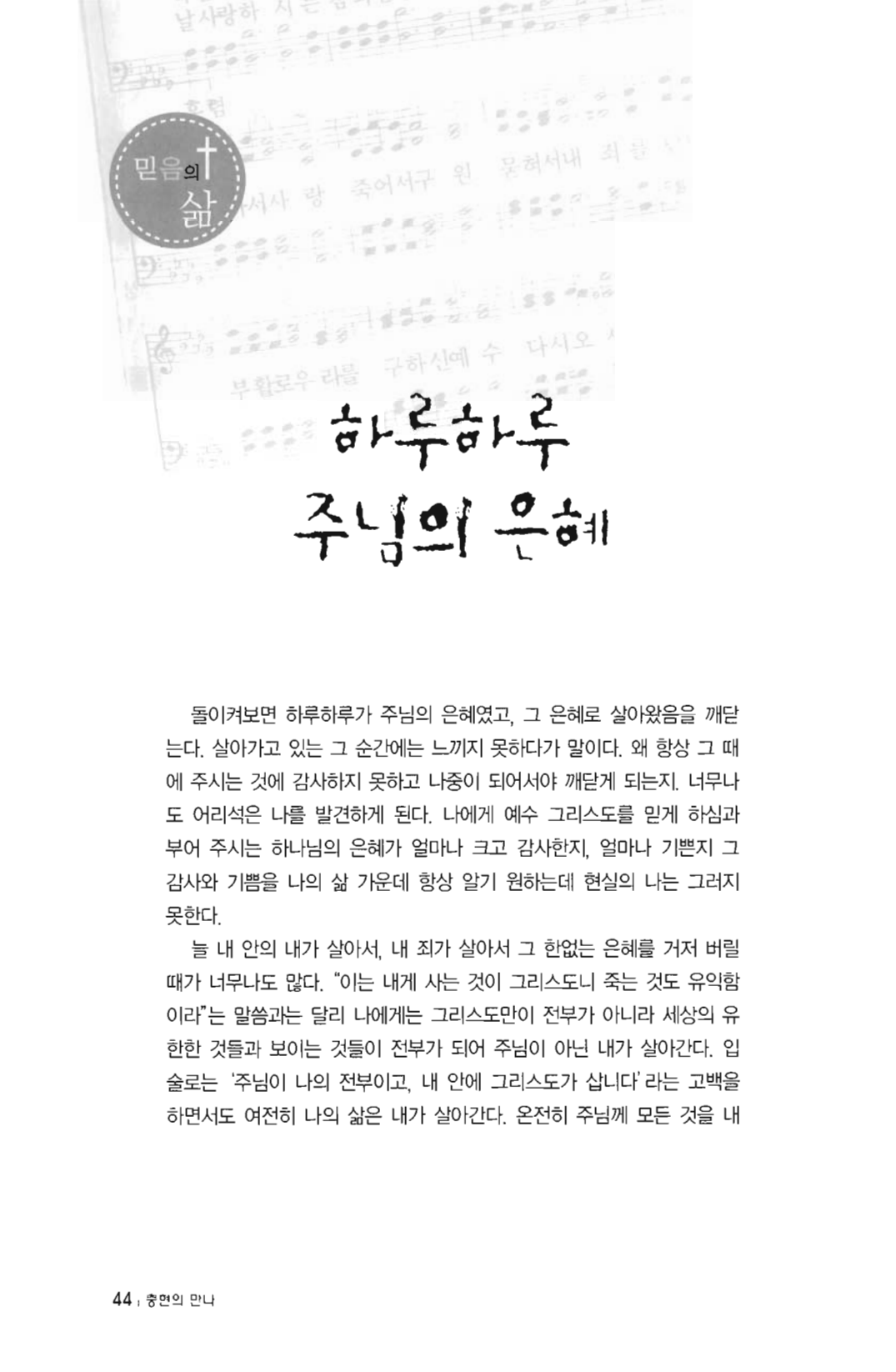
목/창/노/트

• 네 손을 거두라(19절) : '이제 하나님께 묻지 말라'는 말이다.

기도제목

①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법이 아닌, 오직 말씀인 것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기도노트



믿음의
삶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돌아해보면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닫는다.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말이다. 왜 항상 그 때에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지. 너무나도 어리석은 나를 발견하게 된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얼마나 기쁘는지 그 감사와 기쁨을 나의 삶 가운데 항상 알기 원하는데 현실의 나는 그러지 못한다.

늘 내 안의 내가 살아서, 내 죄가 살아서 그 한없는 은혜를 거저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과는 달리 나에게서는 그리스도만이 전부라 아니라 세상의 유한한 것들과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 되어 주님이 아닌 내가 살아간다.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간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내

려놓지 못하고 말이다. 모든 주권이 주님 아래에 있고 그 주권 안에 내가 있음을 잊지 않기 원한다. 삶이 내 뜻대로 될 것 같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은 그렇지 않음을 알고 원한다. 온전히 찬양 받으실 이도 주님이시며, 영광 받으실 이도 주님이심을 기억하기 원한다. 정말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때에 어떻게 임하실지 모르는 주님의 은혜가 늘 기대된다. 가능하지 못할 은혜와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하늘에 찬송이 울리는 그 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나의 삶 가운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한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전부가 되기 원한다. 연약하고 완악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귀한 말씀 가운데 늘 깨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한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길 원합니다. 습관과 의무로 젖어든 믿음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기억하며,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그 십자가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올해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았듯이 앞으로 나에게 주실 시간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더욱 기대한다.

김혜린(청년부)

(통일 158)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 날 168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니라 (마 9:28)

W. Chapman, 1910

조금 빠르게

1. 하늘에 찬 송 이 들리던 그 날
십자가 위 에 서 죽으신 날
죄악이 가 득 한 그 날
그날은 기 고 쉬신 그 날

Chapman, 1910

홍현의 만나 | 45

깨어짐

누가복음 5:1~11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환상
이사야 32:1~4하나님의
선언들에 대한 기대
스바냐 3:14~20베들레헴
작은 마을
미가 5:2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8 주일

19 월요일

☐ 사무엘상 15장

20 화요일

☐ 사무엘상 16장

21 수요일

☐ 사무엘상 17장

22 목요일

☐ 사무엘상 18장

23 금요일

☐ 사무엘상 19장

24 토요일

☐ 사무엘상 20장

하나님의 선언들에 대한 기대

3

| 초점 |

나의 모든 것이 복음을 기대해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 본문 | 스바냐 3:14~20

⁽³⁴⁾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³⁵⁾ 여호와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

⁽²⁰⁾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한 신학교 교수가 한번은 자신의 졸업반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은 대부분 다음과 같았습니다. 통찰력 있는 리더, 역동적인 설교자, 최고의 복음전도자, 탁월한 행정가, 타인을 돌보는 상담자, 전설적인 기금 모금자 등등. 그렇지만 교수는 그들의 대답에 실망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오래 공부하고도 그들 모두가 잘못된 대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하나님의 겸손한 종들이 되길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지 나누어 보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임목사의 대중적인 계획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질, 은사 그리고 능력들에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 로마서 3:9~23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겸손한 하나님의 종, 교회의 참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따라하면 자신들도 강력한 교회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참 종이 되게 합니다.

습 3:14~15

시온은 하나님의 도시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며,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왕궁을 가리킵니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행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습 3:16~17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 중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두려움 없이 화평할 수 있습니다(롬 5:1~11).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에 여러분은 분노할 수 없으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죄악 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 예수님이 없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 필요한 능력과 권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참된 행복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롬 1:16~17

※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히 12:2

하나님의 선언들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시 91:3~4 _____

시 32:7 _____

21세기의 삶 역시 다윗을 비롯한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헤쳐 나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언들을 기대하는 소망을 줍니다. 이 좁은 길을 계속 걷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 마태복음 6:20~21, 누가복음 18:8 말씀이 강조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들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 7:13~14)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을 지나 넓은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셨으며,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이 선언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 일들로 근심하는 것을 멈추고, 진실로 예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며, 또한 여러분의 길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벌하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복음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습 3:19 _____

롬 8:18 _____

| 간절한 기도 |

- ① 나의 모든 것이 복음을 기대하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회개하며,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소서.
- ③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사무엘상 15장

찬송가 111장

목/상/노/트

사무엘은 다시금 사울을 찾아와 여호와와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사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적장을 생포하고 양과 소를 노획하여 의기양양하게 귀환했습니다(1~9절).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자신을 위해서 당당하게 전승비를 세웁니다(10~16절).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 중 가장 작은 지파의 미약한 가문이었지만 겸손하게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자 그를 버리십니다(17~19절). 사울은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무엘을 청하여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여 왕위를 보존코자 함이었습니다(24~31절).

분명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제사'를 위해서라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고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한 발 물러나 '백성'들을 탓합니다. 이 말에 다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사울을 비난합니다.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 10:27).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삼상 15:21)

•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17절) : 이는 사울의 겸손한 태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의 판단으로 도저히 왕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없었던 사울의 과거 처지를 주지시키는 것이다.

기도제목

① 사람의 소리가 두렵게 느껴질 때이라도 여전히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하소서. ② 월요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내가 보는 것은

20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들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실패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외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기준이나 가치관에 의해 움직이는 세속적인 나라와 구별됩니다(8~13절). 사울의 처음 모습(삼상 9:2,21)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는 명목상의 왕일 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왕으로의 자격은 이미 상실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기름부음 받은 후 사울의 번뇌와 혼란을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었습니다(14~23절).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크다 할지라도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외형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우리로서는 언제나 누군가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수시로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실수해도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보는 것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잘못된 기준과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삼상 16:7)

사무엘상 16장

찬송가 114장

묵/상/노/트

•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14절) : 악령은 하나님의 관할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지정된 영역 안에서만 활동한다. 사울은 불순종하여 그 행위로 악령의 공격을 계속 받았다.

기도제목

①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사무엘상 17장
찬송가 112장

묵/상/노/트

악선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시 골리앗의 악몽에 포로가 됩니다. 용모와 신장이라면 뒤지지 않던 사울 왕도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내적 혼란을 수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당한 외적 혼란도 전혀 수습하지 못하는 무능한 왕으로 나타납니다(1~16절).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골리앗의 공포를 깨는 무기는 바로 영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17~30절). 나이, 힘, 무기 등 모든 면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에게 다윗은 자살하기 위해 온 미친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을 무시하며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31~53절).

다윗에게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만약 자신과 골리앗을 외형으로 비교하고 판단했다면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골리앗은 단지 할례 받지 않은 존재로 보였을 뿐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존재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골리앗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각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삼상 17:26)

•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47절) : 히브리 원본을 직역하면 '이 전쟁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이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다.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평생에 대적이 되니라

22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한편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여 생명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관계는 장차 다가올 위기에서 다윗의 보호막이 되며, 다윗의 영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끌어 줍니다(1~5절). 사울은 다윗의 인기를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경쟁자로 주목하였고(7~9절),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의 계획은 매번 철저하게 실패로 끝납니다. 다윗은 특별한 이유 없이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으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죽음에서 구하실 뿐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세워 가십니다(10~30절).

사울은 악신에 들린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두 번이나 던졌습니다.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을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행동을 전혀 한 것이 없는데도 사울 스스로 그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미움과 시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미움과 시기를 준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미움과 시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결과를 만들어 냄으로 인해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며, 복음의 적입니다. 이 마음으로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삼상 18:29)

사무엘상 18장

찬송가 117장

목/상/노/트

• **소고(6절)** : 승전 축하나 종교 의식의 간치 때 사용한 리듬 반주용의 작은 북. 한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두드려 소리를 냈다.

기도제목

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셨거늘

사무엘상 19장

찬송가 118장

목/상/노/트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와 계획이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가자 사울은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위기에 처한 다윗을 은밀하게 도와줍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며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먼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6,9~11절). 이에 미갈은 위협에 처한 다윗을 멀리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다윗을 피신시키고(12~17절),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피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위치를 파악한 뒤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으려 라마의 나옴으로 가게 됩니다(18~24절).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5절)라는 구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의 승리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보다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배후에서 일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을 바라볼 때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은총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 나옴(18절) : ‘주거’ 또는 ‘장막’의 의미를 갖는다. 라마의 어떤 지역에 있는 선지생도의 공동생활 속소를 가리키는 듯하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깨달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삼상 19:5)

기도제목

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깨달 없이 미워하는 악을 행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생명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윗은 다시 사울을 피하여 라마 나뭇을 떠나 요나단에게로 가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1~7절). 그러나 다윗에 대한 사울의 광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보였음에도 사울 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18~22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분명히 드러내자 요나단은 다윗과 맹세한 대로 화살을 통하여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감사와 존경의 자세를 취한 후 서로의 신변을 염려하면서 평강을 빌고 헤어집니다(30~42절).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화살을 찾기 위해서 아이를 보내고 아이에게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37절)라고 외칩니다. 이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돌아오지 말고 떠나라는 신호였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이 활을 쏜 것은 다윗을 살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다만 활을 쏘며 즐기는 것으로 볼 뿐이었습니다. 이는 화살을 주우려 간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화살이 요나단의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의 화살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 대한 사랑이 담긴 화살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 화살의 의미를 모른 채 다만 들고 달음질 하는 아이처럼 신자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달리기만 하고 있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그저 달리기만 하지 말고 복음을 알고, 믿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삼상 20:39)

사무엘상 20장

찬송가 122장

목/상/노/트

• **매년제(6절)** : 매년 1회씩 온 가족이 모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 의식이다. 다윗이 공정의 초하루 축제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비중 있는 제사이다.

기도제목

① 그저 자신의 열심으로 달리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이 진실로 무엇인지 깨닫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총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성탄절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다. ‘메리’는 ‘기쁜,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경배)하라’의 의미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인사말인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탄생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354년에 편찬된 필로칼리아 목록표(Philocalian Calendar)에 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이 12월 25일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축하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에 맞서 이미 336년에 같은 날짜를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문서(Pseudo-Chrysostomic tractate)를 보면 예수님은 수태일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동일하게 3월 25일이기 때문에 그의 탄생일은 9개월 후인 12월 25일이 된다는 것이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지켰다. 문제는 성탄절의 날짜가 아니라 성탄의 의미가 왜곡

성탄절과 율리우스

[참조]

[참조] 율리우스 (이웃 사랑의)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탄절과 연관된 대부분의 사항들은 성탄의 본질적 의미와 상관이 없다. 산타클로스는 전설과 관습의 혼합물이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원래 성탄과 연관된 송가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연말연시를 알리는 유행가처럼 불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의 본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 1:21).



깨어짐

누가복음 5:1~11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의 환상
이사야 32:1~4하나님의
선언물에 대한 기대
스바냐 3:14~20베들레헴
작은 마을
미가 5:2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5 주일

26 월요일

☐ 사무엘상 21장

27 화요일

☐ 사무엘상 22장

28 수요일

☐ 사무엘상 23장

29 목요일

☐ 사무엘상 24장

30 금요일

☐ 사무엘상 25장

31 토요일

☐ 사무엘상 26장

베들레헴 작은 마을

| 초점 |

나의 모든 것이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 본문 | 미가 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은 거대한 강물 같아서 그곳에서 나온 많은 물줄기가 흘러 신약의 놀라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 성경의 초점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요 5:39

눅 24:27

구약 39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창 17:4~5 ; 마 1:1). 또한 신약 27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미가서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알려주신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진실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심오한 의미를 강조합니다.

※ 위임독서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

미가 5:2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 방법을 보여줍니다.

미 5:2 _____

※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고 복 주시려고 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나셨음을 말해 줍니다(눅 2:1~4). 하나님은 미가에게 당신의 아들이 태어날 볼품없는 장소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었습니다

눅 2:5~7 _____

왕 중의 왕께서 무일푼으로, 이 땅의 비천한 곳인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계획이 베들레헴 조그마한 마을의 마구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빌 2:6~8 _____

하나님의 성취

미가 5:2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성취를 보여줍니다.

※ 예수님의 탄생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깨우셨습니다(마 2:1~2).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며 메시아의 오심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하며 그분의 소재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미가 5:2을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이 방문이 그다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 2:4~5

예루살렘에 있는 그 누구도 이방 방문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소식을 가지고 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똑똑한 이방인들에게는 교회도, 목사도, 심지어 성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해 들었고 때가 찼을 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발람이 예언한 대로 그분의 별을 보았습니다.

민 24:17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나아가 온 땅의 왕을 위한 선물을 드리려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명예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미가 5:2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여줍니다.

미 5:2 /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_____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메시아를 보내시리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하찮은 마을이 약속의 장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그곳에 대해 예언했음에도, 종교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은 이 사실에 대해 관심이 있는 척했습니다.

마 2:7~8 _____

성경학자들과 달리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아기 예수를 둘러싼 빈궁한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기께 경배하며, 귀중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이 가장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이 이 경배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마 2:10~12 _____

그들이 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주님은 그들을 고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동방박사들과 종교지도자들 중에 어느 쪽과 비슷합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의 삶을 맡기셨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어,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돌아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눅 2:11,14 _____

계 1:8 _____

| 간절한 기도 |

- ① 나의 모든 것이 복음에 집중하게 하소서.
- ②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소서.
- ③ 2012년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1. 1월 1일 ~ 1월 15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2일	1월 2일	1월 2일	1월 2일
1월 3일	1월 3일	1월 3일	1월 3일
1월 4일	1월 4일	1월 4일	1월 4일
1월 5일	1월 5일	1월 5일	1월 5일
1월 6일	1월 6일	1월 6일	1월 6일
1월 7일	1월 7일	1월 7일	1월 7일
1월 8일	1월 8일	1월 8일	1월 8일
1월 9일	1월 9일	1월 9일	1월 9일
1월 10일	1월 10일	1월 10일	1월 10일
1월 11일	1월 11일	1월 11일	1월 11일
1월 12일	1월 12일	1월 12일	1월 12일
1월 13일	1월 13일	1월 13일	1월 13일
1월 14일	1월 14일	1월 14일	1월 14일
1월 15일	1월 15일	1월 15일	1월 15일
1월 16일	1월 16일	1월 16일	1월 16일
1월 17일	1월 17일	1월 17일	1월 17일
1월 18일	1월 18일	1월 18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19일	1월 19일	1월 19일
1월 20일	1월 20일	1월 20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1일	1월 21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2일	1월 22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3일	1월 23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4일	1월 24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5일	1월 25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6일	1월 26일	1월 26일
1월 27일	1월 27일	1월 27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8일	1월 28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29일	1월 29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0일	1월 30일	1월 30일
1월 31일	1월 31일	1월 31일	1월 31일

26

진설병

사무엘상 21장
찬송가 438장

목/상/노/트

- 거룩한 떡(4절), 진설병(6절) : 거룩한 떡은 이전 안식일에서부터 돌아오는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여호와 앞 즉 성소의 떡 상에 배열어 놓았던 '진설병' (6절)을 가리킨다. 이 떡은 특별히 여호와께 바치기 위해 고운 밀가루로 만들며, 모두 12개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6개씩 두 줄로 배열되어 성소의 떡 상 위에 진설되었다.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되어야 했고, 물려낸 떡은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의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 아기스(10절) : 마옥의 아들이며 블레셋 가드의 왕이다. 다윗은 망명하러 아기스 왕을 두 번 찾았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은 성소였습니다. 두려움과 위협, 죽음의 공포 속에서 성소를 향하여 달려간(1~2절) 다윗은 그곳에서 빵과 칼을 얻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던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 한 소년들에게 주었습니다(3~6절). 다윗은 그곳을 떠나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를 안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체해야만 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미친 다윗은 이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안심하며 그를 놓아줍니다(12~15절).

예수님은 다윗이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은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마 12:1~8). 이것은 다윗의 행위가 결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을 어기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의 뜻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감각이 사라지고 율법만 남아 있다면, 우리는 정죄의 대상일 뿐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 낸 떡 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 낸 것이더라(삼상 21:6)

기도제목

- ① 법으로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얻은 생명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아히멜렉의 죽음

27

아들람 굴로 도망한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도피하는 와중에도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는 일에 소극적인 신하들에게 하사품들을 언급하며 충성을 유도합니다. 사울은 어느새 주변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아들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1~7절). 도액은 아히멜렉이 다윗의 도망을 도와준 인물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의 출세를 위해 왕의 비위를 맞추려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사울은 결국 아히멜렉을 죽이고(9~20절), 다윗은 아히멜렉의 죽음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면서 아비아달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합니다(21~23절).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준 것에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윗을 도와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들을 죽음으로써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자신이 세상의 왕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세상을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면 산다고 가르쳐줍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세상이 신자를 알아볼 리가 만무합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로 인해 살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얻을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삼상 22:16)

사무엘상 22장

찬송가 240장

목/상/노/트

• 선지자 갓(5절) : 사울로부터 다윗에게 돌아온 첫 선지자였다.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갓은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했다.

기도제목

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에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담대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② 위임목 사임을 선지자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기도노트

나는 네 다음

사무엘상 23장

찬송가 221장

목/상/노/트

다윗은 도망자로서 어려운 위치에 있었지만, 사울의 추적에 도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사울은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1~7절). 다윗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일라가 다윗을 보호하기는커녕,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12~13절). 다윗은 고독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의 친구 요나단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전해드립니다. 비록 그들은 헤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신실하였고 서로에 대해서도 신실하였습니다. 그는 또 다시 사울의 추적을 받지만,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하십니다(15~20절).

계속되는 쫓기는 삶으로 인해 다윗은 피곤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역시 흔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단지 좋은 말로 위로해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사울이 자신의 아버지이기만 했지만 하나님이 분명 사울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믿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만 없어지면 사울의 뒤를 이어 자신이 왕이 될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아라바(24절)**: 사해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의 남쪽으로 뻗어 내린 저지대를 가리킨다. 그 경계는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 계곡을 따라 사해를 끼고 아카바 만까지 이른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삼상 23:17)

기도제목

① 내게 유익이 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노트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29

사울은 틈만 나면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1~2절). 그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3~4절). 그러나 다윗의 도피 생활을 지배한 것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공의를 위하여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6~13절).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은혜를 베푸는 일에 대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될 것과 그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을 축복해 주고 자신이나 후손들을 향하여 보복을 하지 않기를 맹세하게 합니다(16~22절).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사울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사울은 누구를 따라 나온 것입니까? 사울이 따라 나온 자는 다윗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으로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전혀 가치 없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말하면서 그러한 자신을 왕이 왜 쫓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아무 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은 아무 것도 아닌 자신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으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하찮은 세상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을 쫓아 날마다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찬송가 459장

목/창/노/트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삼상 24:14)

• 죽은 개(14절) :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가장 모욕적인 멸시의 표현이다.

기도제목

①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이 하찮은 세상을 쫓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쫓아 날마다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사무엘상 25장
찬송가 521장

묵/상/노/트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사울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엔게디 황무지보다 더 남쪽인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1절). 그곳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발의 양들을 보호하며 지켜 주었습니다. 후에 다윗은 나발에게 정중한 예의를 표하면서 음식을 요청합니다(5~8절).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며, 음식 배불기를 거절하였습니다(9~11절).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교만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자신의 가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영성도 회복시켜줍니다(18~31절). 다윗은 나발을 심판하려는 자신의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결국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32~44절).

나발은 다윗이 베푼 은혜를 무시하고, 그의 인격을 모독합니다. 이는 나발이 다윗의 현재 처지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볼 때 다윗의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윗의 초라한 처지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발을 쳐서 죽이시고, 아비가일은 칭찬을 듣고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으며, 세상에서 머리 돌 곳조차 없는 초라한 분이셨습니다. 그 초라하게 보이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은 좁고 초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삼상 25:11)

• 주(25절) : (하) '아돈', 성경에서 사용될 때 ① 여호와를 일컫는 칭호 ② 왕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 ③ 종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한 칭호 등으로 쓰인다.

기도제목

① 세상이 외면하는 초라한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생으로 가는 생명 길임에 기쁨으로 걷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31

십 사람들은 또 다시 자발적으로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1~3절).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잡으려 온 사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밤중에 사울의 진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생명이 자신의 손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6~12절).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온 다윗은 자신이 아브넬보다 훨씬 충성스러운 사울의 신하임을 암시적으로 말하며, 자신은 결코 사울에게 적의가 없음을 강조합니다(13~25절).

다윗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곧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였지만 아비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한 것입니다. 하필이면 다윗이 사울을 찾아왔을 때 사울과 그의 군사가 잠들어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옳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삼상 26:10)

사무엘상 26장

찬송가 610장

목/상/노/트

• **아브넬(14절)** : 빛의 아브지라는 뜻이나,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당시 영적 무지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다.

기도제목

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는 믿음을 주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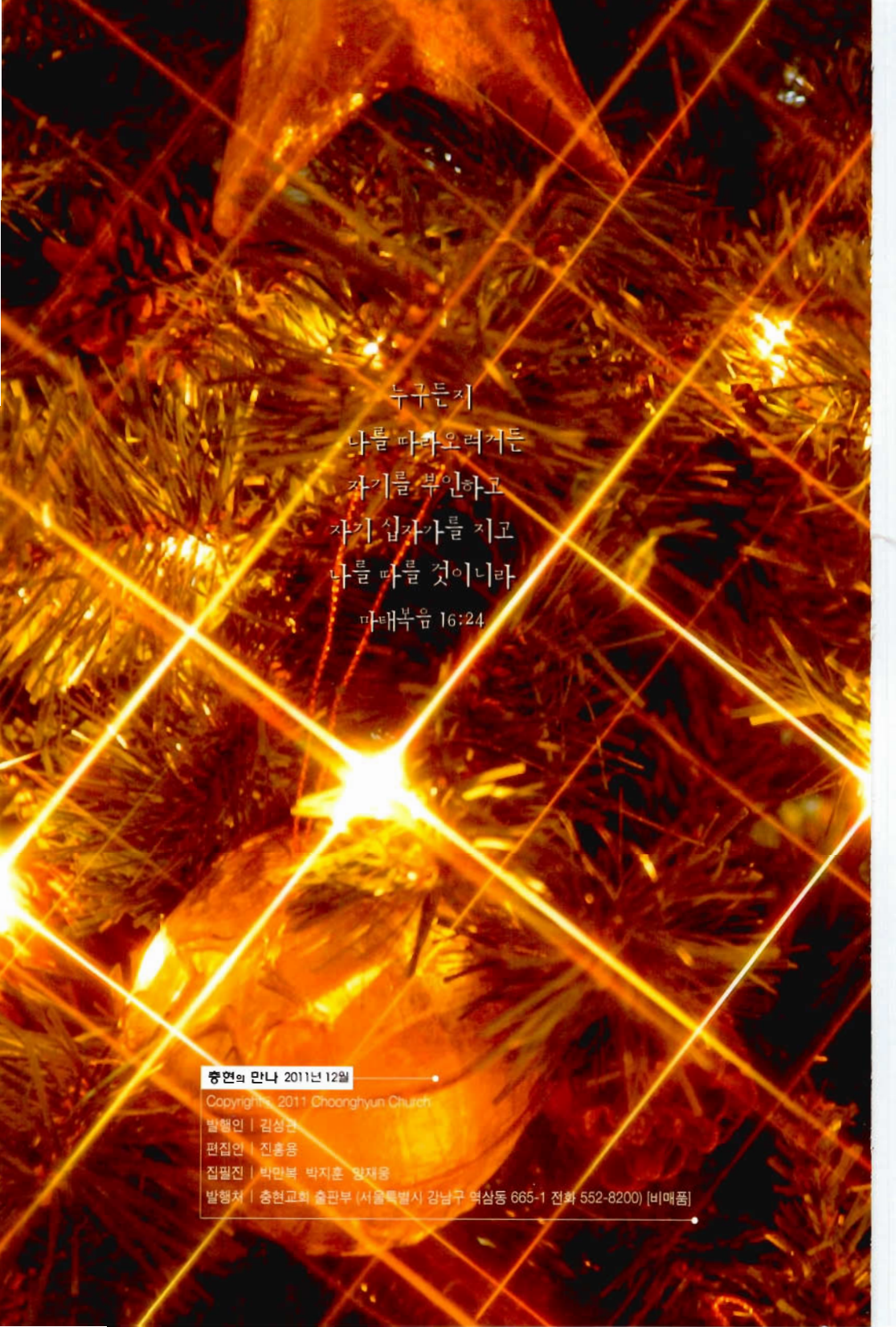
기도노트

2020. 1. 1. 1. 1.

2020. 1. 1. 1. 1.

2020. 1. 1. 1. 1.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1년 12월

Copyrights 2011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진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박만복 박지훈 임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